

현대차 아이오닉5 ‘최고 전기차’ 등극

獨 전문지 평가서 BMW·아우디 제치고 1위 올라

발전 가속·최고속도·충전 기술·제동 성능 등 호평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사진)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의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1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거진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이 최근 실시한 콤팩트 크로스오버 전기차 3개 차종 비교 평가에서 아이오닉 5는 총점 3천267점으로 최우수 모델에 선정됐다.

아우토 자이퉁은 아이오닉 5, BMW iX3, 아우디 Q4 e-트론 3개 차종을 대상으로 바디(차체), 주행 킴포트(안락성), 친환경성/비용, 파워트레인 등 세부 항목을 평가했다. iX3는 3천187점, Q4 e-트론은 3천149점을 받았다.

아이오닉 5는 발전 가속과 최고 속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감동을 주는 충전 기술’이라는 표현을 받으며 충전 기술력도 호평을 받았다.

제동성능에서는 비교 차종을 압도했고 잔존 가치와 보증 기간 등 환경성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바디 부문에서는 앞·뒷좌석 모두 넉넉한 공간과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실내 개방감까지 더해 최고의 실내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넉넉한 트렁크 공간에 대한 호평까지 더해 평가차종 중 2위를 차지했다.

아우토 자이퉁은 “아이오닉 5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과 함께 기술적으로도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며 “초고속 충전기술과 긴 보증기간이 동급 모델 중

가장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이오닉 5는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 익스프레스’가 매년 실시하는 신차 어워드에서 ‘2021 올해의 차’, ‘최고의 중형차’, ‘최고의 프리미엄 전기차’, ‘최고의 디자인’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바 있다.

한편, ‘아우토 빌트(Auto Bild)’, ‘아

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Auto Motor und Sport)’와 함께 독일 3대 자동차 전문매체로 손꼽히는 ‘아우토 자이퉁’은 자동차에 대한 다양하고 까다로운 각종 평가를 실시해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자동차 산업 및 운전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기수희기자



올해 자동차 내수 작년보다 3.5% 감소할 듯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고서…반도체 품귀 등 여파

수입차는 점유율 ↑ …“국산차 역차별 등 개선해야”

올해 자동차 내수 시장은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등의 여파로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184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산차는 지난해 기저효과와 신차 출시 저조 등으로 160만대 이하로 후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입차는 공격적인 가격 인하, 고급차 수요 증가 등으로 점유율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자동차산업 수정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내수 시장에서 국산차는 지난해보다 5.8% 감소한 151만대, 수입차는 9.1% 증가한 33만대가 판매될 전망이다.

국산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2002년 이후 18년 만에 160만대를 넘어서는 등 실적 호조를 보였으나 올해는 하반기 개별 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연장에도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인한 공급 차질이 이어지며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12종이었던 신차(연식변경 제외) 출시도 올해는 현대차 아이오닉 5와 캐스퍼, 기아 K8과 EV6, 한국GM 볼트 EUV 등 8종에 불과하다. 르노삼성차와 쌍용차는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

반면 수입차의 경우 인터넷 판매 확대와 수입차 대중화 전략 등으로 가격을 낮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테슬라 등 전기차 판매도 늘며 점유

율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올해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14.0% 증가한 215만대로 예상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주요지역의 수요가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데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중국,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스포르유틸리티차(SUV)와 친환경차 등 고가 차종의 비중이 늘어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28.3%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은 지난해 대비 4.4% 증가한 366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앞서 협회가 지난해 말 내놔던 전망과 비교하면 내수(182만대→184만대)는 소폭 늘어난 반면 수출(234만대

→215만대)과 생산(386만대→366만대)은 줄어든 수치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1~7월의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 증가한 211만대였다. 1~7월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1% 증가한 124만대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수 판매는 3.2% 감소한 106만대로 집계됐다. 내수 시장에서 국산차는 6.8% 감소한 87만대에 그쳤으나 수입차는 18.2% 증가한 19만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입차 증가 추세에 대해 보고서는 승용차 개소세 부과 시점, 중고차 매매 등 국산차와 수입차간 역차별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1억이상 럭셔리 수입차 불티 작년 판매량 넘어 ‘역대 최다’

1-8월 4만여대…작년비 66% ↑

친환경차·RV 모델이 절반 이상

올해 팔린 1억원 이상 수입 차량이 8개월만에 지난해 판매량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연간 판매량 기록을 갈아치웠다.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는 4만5천42대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연간 판매량(4만3천158대)을 넘어섰다.

지난해 1-8월(2만7천212대)보다 65.5% 증가했고 전체 수입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16.0%)보다 7.2% 포인트 늘어난 23.2%였다.

이에 따라 올해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은 처음으로 5만대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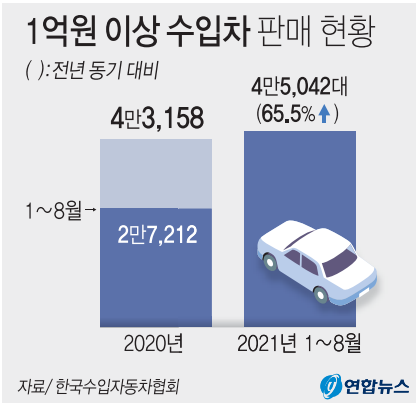
브랜드별로 보면 벤츠가 1만9천469대로 가장 많았고 BMW 1만3천29대, 포르쉐 6천315대, 아우디 2천957대, 마세라티 547대의 순이었다.

모델별로는 벤츠의 S580 4MATIC이 2천974대로 가장 많았고 벤츠 CLS 450 4MATIC(2천689대), BMW X7 4.0(2천55대), 벤츠 GLE 400 d 4MATIC 쿠페(1천95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고가 수입 친환경차와 레저용 차량(RV)의 인기가 높아진데다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보복소비 심리가 강화되면서 1억원 이상 수입차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까지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 중 친환경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전기차)는 총 2만3천753대로 절반 이상(52.7%)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천802대)에 비해서는 무려 4배로 늘었다.

1억원 이상 RV 판매량은 2만4천159



대로 지난해(1만3천99대)보다 84.4% 증가했다. 전체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5%였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원은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올해 출시되는 150종의 전기차 모델 중 상당수가 고급차 모델로 분류된다”며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고급 수입차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가 수입차 중 법인 구매 비율은 여전히 개인 구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이 구매한 차량은 2만9천384대로 65.2%를 차지한 반면 개인 구매는 1만5천658대로 34.8%에 불과했다.

솔로이스는 올해 들어 판매한 161대 중 146대가 법인 차량이었으며 랍보르기스는 250대 중 213대, 벤틀리는 308대 중 245대를 법인이 구매했다.

회사 명의로 업무용 고가 수입차를 구매한 뒤 개인이 사용하는 관행은 그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한 차량의 구매·유지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GS칼텍스, 전기차 충전 모바일 앱 출시

GS칼텍스는 전기차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기차 충전 모바일 앱 ‘에너지플러스(energy plus) EV’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앱에서는 전기차 간편 충전과 충전기 정보 검색, 충전비 할인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바로 충전’ 서비스는 고객이 충전 패턴과 결제 수단을 앱에 미리 등록해두면 충전기에서 바코드 스캔만으로 충전 주문과 결제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의 모든 GS칼텍스 전기차 충전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앱에서 GS칼텍스뿐만 아니라 타

사의 충전기 위치와 운영 시간, 현재 이용 가능 여부 등 전기차 충전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충전하는 경우 kWh당 20원의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충전 앱으로 전기차 고객에게도 차별화된 간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발굴해 고객 편의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는 지난 7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에너지플러스’ 모바일 앱의 정식 버전도 이날 출시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야외 결혼식

칠순잔치

체육대회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

CMYK